

160만 달러에 '순결' 판 20대 여성



영국의 20대 여성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성적 순결을 경매에 부친 결과, 고액에 낙찰됐다.

리아(24·사진)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여성의 성적 순결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자신의 처녀성이 130만 파운드(약 160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과의 '첫날밤'을 산 정치인의 신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영국 보수당의 50대 남성이라고 밝혔다.

리아는 지난 두 달간 이 남성과의 사전 만남을 가져왔으며, 성매매가 금지된 영국이 아닌 타 국가에서 만나 '약속'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 여성은 "나만의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고,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녀성을 팔기로 결심했다."면서 "런던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었고, 집세와 관련한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또 가족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도 컸다."고 동기를 밝혔다.

이어 "나의 첫 경험을 산 정치인은 매우 썸뽕맨이었고 유식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힘을 가진 남성과 만나는 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그녀가 처녀성을 팔았다는 해당 사이트가 경매 낙찰금의 20%는 수수료로 떼어가며, 이전에도 일본의 한 정치인이 경매를 통해 유명 모델의 첫 성 경험을 낙찰받은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또 여성들이 이 사이트의 경매에 자신을 내놓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성관계 경험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일정금액 이상이 예치돼 있는 재산 명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에서 '아기 공장' 또 적발

나이지리아에서 끔찍한 '아기 공장' (Baby Factory)이 또 적발됐다.

지난달 라고스의 한 '아기 공장'을 급습한 나이지리아 경찰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를 포함해 19명의 임신부와 4명의 어린이를 구조했다. 구조된 임신부들은 15세~28세 사이 여성으로, 대부분이 납치됐거나 취업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신매매범들에게 단체로 감금된 채 성폭행에 시달리며 기계적인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야 했다.

경찰은 이 아기 공장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남아 50만 나이라(약 1,400달러), 여아 30만 나이라(약 900달러)에 팔려나갔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약 1억9,000만 명, 국내총생산(GDP) 3,757억 7,071만 3,743달러로 세계 31위 수준이다. 특히 인도와 중국 다음으로 많은 청년 인구나 풍부한 석유 자원 때문에 차세대 경제강국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의 생활은 매우 열악하다. 석유를 수출하면서 부를 창출하기는 했으나 일부 기득권층의 배만 불렀다. 농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절반 이상은 아직도 식량 걱정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가난이 인신매매를 부추기면서 아기 공장도 늘어났다. 2008년 처음으로 실체가 드러난 나이지리아의 아기 공장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년 적발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적발된 아기 공장에서 14세~17세 사이의 소녀가 구조됐는데 모두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받지 못한 채 감금돼 있었다. 더욱 끔찍한 건 모든 소녀가 한 사람의 성폭행으로 임신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은 공장에서 11명의 아기도 함께 구조했다.

아기 공장에서 태어난 아이들 대부분은 남아는 노예로, 여아는 윤락가로 팔려나간다.

결승선 코앞에서 번개 맞아 사망한 남성

지난 28일 캔자스주 엘크시티 주립공원에서 열린 달리기 행사에 참여한 남성이 결승선을 400m 남겨두고 번개에 맞아 사망했다.

이날 행사는 호수를 둘러싼 50km짜리 하이킹 코스 달리기였다. 행사 도중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휘몰아쳤으며, 기상 이변 속에 달리기하던 세 아이의 아버지인 토머스 스탠리(33·왼쪽 사진)가 번개에 맞고 쓰러졌다. 다른 참가자들이 곧바로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스탠리는 결국 숨을 거두었다.

스탠리의 아내 애슐리 스탠리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세 아이의 아버지, 내 사랑을 잃었다."면서 "남편과 함께 축복받은 15년을 보냈고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다." 라면서 눈물을 쏟았다.



행사를 주관한 '플랫록' 측은 스탠리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밝히고, 유족이 개설한 모금페이지를 소개했다. 또 스탠리가 비록 결승선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완주를 인정해 애슐리에게 메달을 대신 수여했다. 스탠리의 기록은 104명의 참가자 중 1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탠리의 사연이 전해지자 유족의 모금 페이지에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6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모금됐다.

한편 미국기상청(NWS)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 전역에서 번개를 맞고 사망한 사람은 스탠리를 포함해 모두 18명이다.

NWS는 사람의 수명을 80년으로 가정했을 때 살아있는 동안 번개에 맞을 확률은 15,300분의 1이며, 이 중 사망에 이르는 것은 10% 정도라고 설명했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